

사설

무책임한 동국학원 이사회

동국학원 제191회 이사회가 개최되었지만 현안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폐회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 미국 LA에 있는 동국로열대 관련 문제, 이사 선임안, 불교병원 유관 정관개정안, 수익사업 추가안, 총장 정년 연장안 등이 심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산안만 처리하고 이사 3인이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성원미달로 나머지 안건은 논의 자체가 무산되었다. 동국학원은 현재 초유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산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원 날짜조차 불투명한 상태며, 5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다. 개원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자금이 적어도 600억원의 거금이라는 분석도 있다. 나아가 미국에 있는 동국로열대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교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안팎으로 봉착한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동국학원 이사회의 정치적 이해특성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90회 이사회도 성원미달로 유회된 바 있다. 그러나 동국학원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사회의 무책임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이사회가 몇몇 이사들의 이해타협으로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한다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위기는 구성원들의 단합과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방치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 목숨이 너무 값없는 사회가 되는 것 같다. 신문과 방송을 보면 납치, 강도, 살인이 비일비재하다. 모두 욕망의 무질서와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귀가하는 여대생을 납치하여 살인하기, 장인이 진 빛을 사위에게 갚으라며 감금하여 신체 포기까지 시키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카드 빛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살해한 패턴도 있다. '장님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곁잡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짧은 정치기도 많다. 그뿐인가? 수많은 시민 운동가들이 좋은 사회, 밝은 사회를 만들려고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는 공짜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율리시스의 결핍 때문이다. 상대적 박탈감에서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의 어두운 단면이 우리 사회에 너무 일찍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렇지만 근본은 인간의 양지(良知)를 찾는데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지키려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뜻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의 무의식을 교정하는 의식개혁 작업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다. 이 사회의 희망 만들기, 불교가 나서야 할 때다.

'인명 경시' 더이상 안된다

사람 목숨이 너무 값없는 사회가 되는 것 같다. 신문과 방송을 보면 납치, 강도, 살인이 비일비재하다. 모두 욕망의 무질서와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귀가하는 여대생을 납치하여 살인하기, 장인이 진 빛을 사위에게 갚으라며 감금하여 신체 포기까지 시키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카드 빛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살해한 패턴도 있다. '장님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곁잡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짧은 정치기도 많다. 그뿐인가? 수많은 시민 운동가들이 좋은 사회, 밝은 사회를 만들려고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는 공짜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율리시스의 결핍 때문이다. 상대적 박탈감에서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의 어두운 단면이 우리 사회에 너무 일찍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렇지만 근본은 인간의 양지(良知)를 찾는데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지키려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뜻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의 무의식을 교정하는 의식개혁 작업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다. 이 사회의 희망 만들기, 불교가 나서야 할 때다.

사람 목숨이 너무 값없는 사회가 되는 것 같다. 신문과 방송을 보면 납치, 강도, 살인이 비일비재하다. 모두 욕망의 무질서와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귀가하는 여대생을 납치하여 살인하기, 장인이 진 빛을 사위에게 갚으라며 감금하여 신체 포기까지 시키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카드 빛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살해한 패턴도 있다. '장님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곁잡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짧은 정치기도 많다. 그뿐인가? 수많은 시민 운동가들이 좋은 사회, 밝은 사회를 만들려고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는 공짜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율리시스의 결핍 때문이다. 상대적 박탈감에서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의 어두운 단면이 우리 사회에 너무 일찍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렇지만 근본은 인간의 양지(良知)를 찾는데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지키려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뜻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의 무의식을 교정하는 의식개혁 작업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다. 이 사회의 희망 만들기, 불교가 나서야 할 때다.

재가불자 수행체계 재정립

조계종 7~9월 참선프로그램등 운영실태 조사

포교연구실·불학연·전문가로 '연구위'

사찰·단체 100여곳...연말까지 자료집

재가불자들의 수행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조사가 진행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교육원 불학연구소와 함께 종단의 전통적 수행체계인 간화선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재가불자 수행프로그램 현황 조사'를 7월 1일부터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위해 포교원은 지난해부터 교육원 불학연구소, 총무원 기획실 등과 공동으로 기획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해 왔으며, 수행법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는 등 사전 준비를 해 왔다. 이번 조사는 참선, 염불, 간경, 기도 등 전통적인 수행법과 유희나, 동사법, 선무도, 아바타, 요가 등 현대의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진행은 포교연구실과 불학연구소 실무자, 수행 연구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성립 조사연구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포교원은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100여 곳의 사찰과 단체의 재가불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수행현황 방문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0월중에는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고, 연말까지 조사 결과를 특징별로 분류, 운영 사찰(단체)별 진행 내용과 운영 전반에 따라 보편성·특수성을 가진 모델을 비교 분석해 자료집으로도 엮어 내기로 했다. 자료집은 향후 간화선의 체계화와 대중화를 위한 신도 수행 체계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포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행 흐름을 진단하고 수행법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가불자들의 수행체계를 바로 잡아 나가기로 했다. 또한 종단의 간화선 수행체계 확립과 수행포토 조성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포교연구실 박희승 차장은 "수행프로그램과 운영 현황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자료가 구축되면 간담회와 세미나를 마련하여 각종 수행법의 장점과 상호 관계를 분석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영남지역 스님들

18일 DJ와 면담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을 비롯한 영남지역 스님들은 18일 서울 동교동 자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하고 남북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모임은 영남지역 스님들의 방문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 자리에는 세민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전 주지 흥교스님, 대한불교 신조사 사장 겸법사 주지 조연스님, 양산 천불사 창건주 도봉스님, 영천 효호사 주지 해공스님, 은해사 전 주지 법의스님이 참석했다. 해공스님은 "대통령 재임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한 데 대해 전 국민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해공스님은 또 "김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하면서 대화가 잘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한명우 기자



'6·15선언' 3돌...남북 동시법회 6·15 공동선언 3돌을 기념해 조국통일기원 남북 불교 동시법회가 14일 서울 조계사와 평양 광명사에서 병행됐다. 남측 법회에서 참가자들은 공동발원문을 통해 '6·15선언 실천과 통일 성취를 위한 정진'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활동 전개 △남북 불교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사진=박재현 기자

남북종교교류 추진협의회 구성

문광부·주요종교·단체합의, 9월 2차회합

개별 종단별로 추진되던 남북종교교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조계종 사찰부에 따르면, 문광부와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국내 주요 종교단체들은 지난 5월 16일 모임을 갖고 '남북종교교류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조계종,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민족종교협의회, 문광부가 참여하고 있다. 문광부 주도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통일을 위해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오는 9월 2차 협의회를 갖고 협의회의 역할과 사업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불자들 민원 '온라인' 해결 인기

'이제 웬만한 민원은 사찰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해결한다'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해 10월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마련한 '온라인민원' 코너가 스님과 불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총무원이 1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 20일까지 제기된 87건의 민원 가운데 82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

96%의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이 코너를 통해 제기된 민원 건수는 한달 평균 50여건. 과거 총무원을 방문해서 담당자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항들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주로 제기된 민원은 행정 절차나 법률상 문제와 관련된 것들. 이와함께 총무원은

행자등록이나 승적증명서 발급 등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힘입어 조계종 홈페이지는 10월 개편 이후 회원이 3천명 이상 늘었다. 현재 등록된 회원만도 4,820명. 또 포교원도 18일 인터넷을 통한 신행정포스터 운영에 들어가는 등 조계종은 바야흐로 인터넷을 통한 종단 홍보 및 서비스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 한명우 기자

보문종 지연스님 입적

20일 보문사에서 영결식

재단법인 보문원 이사 보정당 지연(淸淨堂 智蓮) 스님이 18일 보문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77, 법랍 62세. 1927년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한 지연스님은 42년 보문종 종정 해안스님을 은사로 득도,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57년 보문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수료했으며, 79년 재단법인 보문원 감사, 86년 법인 이사 등을 역임했다. 영결식은 20일 보문사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엄수됐다. 박봉영 기자

'연대' 민명 심 민석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유승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일부 존자 범통수호와 유지보존 및 법인 허가 취소 촉구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 개최공고
= 일부 존자 전국 7천 제자와 전국 일부 종도들이여 다 같이 규탄대회에 동참하여 해중 행위자들을 처벌하고 종단을 정상화 합시다 =
1. 전국 일부 존자 7천 제자와 종도들은 대 스승이신 일부 존자께서 일불선원 등 불교재산을 영구히 유지 보존하고 중생제도와 세계인류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8.9.16 창종한 종단을 활성화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991.9.27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을 설립하시어 석가세존의 해명이라 칭지중풍을 선양하고 범통을 수호하여 왔으나 지난 1996.6.25 저희들의 대 스승이신 일부 존자께서 열반적정에 드신 후 종단을 탈취할 목적을 가진 불순세력의 사주에 의하여 중현중범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난 2000.5.2 중앙중회에서 재단법인을 식재하고 공식명칭을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으로 의결하여 정상적인 종단이 일시에 미비되고 각종 중무기구의 기능이 중지되어 1천여 종도들이 흩어져 일부 존자께서 평생 심력을 기울여 창종한 종단이 일시에 붕괴상태에 놓이게 되자
2. 종단을 두고만 볼수 없어 구종하고 애중하는 일부 종도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법적인 인명종 임의종단(당시 총무원장 장모스님)측과 대처하다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지난 2000.7.18 신명동 93-1 일불선원 대법당에서 전국 종도 4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전국 종도대회를 개최하고 범통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명동 중